

삼학사를 마치지 못했다면 해제 아닌 결제중

조계종 전국 100여 선원 일제히 동안거 해제, 2242명 수좌에 방장 스님들 법어로 격려

지난해 음력 10월 15일부터 3개월 간 화두 참구에 들었던 수행 납자들이 2월 17일 동안거 해제를 맞아 가부좌를 풀고 만행길에 올랐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경인년(庚寅年) 동안거(冬安居) 선사방합록(禪社芳華錄)>에 따르면 이번 동안거에는 전국 100개 선원(총림 5곳, 비구선원 59곳, 비구니선원 36곳)에서 총 2242명(비구 1202명, 비구니 826명, 총림 214명)의 스님들이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말을 듣고서 조주 선사께서 말씀했습니다. “자네가 다시 그 회상으로 갈 때에는 설봉 스님에게 드릴 삼한 자루를 들려서 보내겠다.” 제대로 일척안(一隻眼:올바른 눈)을 가진 남자가 본다면 티끌 한 개가 날리면 온 하늘이 가려짐을 압니다. 그리고 겨자씨 한 개가 떨어지면 대지전체를 덮는 것도 알아차립니다. 뿐만 아니라 꽃 한송이가 피면 부처님이 나타나신 줄 알고 잎새하나가 떨어지면 천하에 가을이 온 줄을 압니다. 제대로 안목을 갖춘 이가 바라보면 낱알의 사물마다 낱알의 존재마다 분명하고 뚜렷함으로 그 자리에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현상에는 갖가지 차별이 있지만 이치는 하나의 법도로 귀착될 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사방으로 통하는 눈을 가진 뛰어난 종사야 비로소 이를 제대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른 안목을 얻었을 때 비로소 이 법문의 제대로 된 낙처(落處)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안목을 얻었을 때 법문이 낙처를 얻는다”

조계종 중정 법전 스님

일척안(一隻眼)으로 실상을 꿰뚫어보라!

몽둥이 아래의 일척안이여 조주선사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디에서 오는가?”

“설봉 선사의 회상에서 옵니다”

“선사께서는 어떤 법문을 하시던가?”

“선사께서 ‘시방세계전체가 모두 실상을 꿰뚫어보는 납자의 일척안(一隻眼)인데, 이 자리에 있는 대중들은 어디에 통을 누겠는가?’ 라고 하십니다”

설봉 선사의 ‘시방세계 전체가 모두 실상을 꿰뚫어보는 납자의 일척안인데, 이 자리에 있는 대중들은 어디에 통을 누겠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하여 조주선사는 ‘설봉에게 삼한 자루를 보내야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된 안목을 지닌 답변이 나올 때까지 해제 시 만행할 때에도 반드시 이 화두를 참구하면서 행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丹山生鳳凰하고 獅子產後狼모다

棒下一隻眼이여 徒誇第一機나라

단산에는 봉황새가 나고 사자는 무서운 새끼를 낳는도다.

몽둥이 아래의 일척안이여! 부질없이 제일의 기봉을 자랑하는 구나.



일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무얼 하시려고 기와장을 깔고 계십니까?” “거울을 만들어 보려고합니다.” “기와장을 깔아서 어찌 거울을 만들려하십니까?” “그렇다면 좌선을 해서는 어찌 부처를 이루려고 합니까?” 도일 스님은 이 말씀에서 깨우침을 얻어 남약 스님의 수제자 되었습니다.

지음이 없고 희비가 없고 취사가 없고 범성, 단상이 없는 평상심, 일체가 모두 이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니 바로 지금 손에 쥐 마음은 만법의 근원이 되는 것이며 이로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상심이 도이며 있는 그대로가 범계임을 알아 능인의 자량을 사해에 전하기 위한 먼 길을 떠나야합니다.

전법도생을 실천하지 않는 깨달음, 혼자만의 도심은 행위를 중생과 함께하지 못하는 낙합일뿐입니다. 용맹심으로 산문을 나설 때입니다.

우리는 늘 함장을 합니다. 이것은 서원이며, 수행입니다. “자타 불이, 자타가 본래 하나이거니 근본으로 부터 하나로 성취하라.”

“바로 지금 손에 쥐 마음이 만법의 근원”

태고종 중정 혜초 스님

不滅燈兮長明燈 人人皆人人燈 長明燈兮不滅燈 世世年年世世燈

언제까지도 꺼지지 않을 등불이여사람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등불일세기리 기리 밝아 꺼지지 않는 등불로세세년년 밝게 비치니 영원의 등불이여라

조계산색은 어제 같이 산방을 열어 놓는 평상심 일진대 길 떠나려는 그대들의 손에도 어제 같은 산색은 도가 되어 물들어 있는가?

승산의 전법원에서 남약 스님이 좌선하고 있는 도일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좌선을 하십니까?”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어느날 남약 스님이 좌선하고 있는 도일 스님의 방문 앞에서 기와장을 숯물에 깔고 있었더니 이를 보고 도

하신 부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생각해 보면 진정 국가를 위하는 사람의 합장은 애국이요, 민족을 위하는 사람의 합장은 애족이요, 아버이를 위하는 사람의 합장은 효성이요, 자신의 일을 위하는 사람의 합장은 성실인 것입니다.

수행자들이여이제 산문을 나서 중생을 위해 함장하고, 세상을 위해 함장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평상심인 도를 전하여 결국 불국토가 여기기를 깨닫게해야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서원이며 사명입니다.

一念思量變化多 天堂地獄從此分 隨緣三界度衆生 是名千億化身佛

한생각을 일으키에 일반법이 일어나니 천당이라 지옥이라 이를 좇아 나뉘진다 삼계의 중생을 인연따라 제도하니 이름하여 모시오니 천역화신 부처일세.

“자성의 거울을 비춰보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日月爲燈燈不盡이요 乾坤作屋屋無邊이러 此身隨處生涯足하니 飢食松花渴飲泉이더다. 일월로 등불을 삼으니 꺼지는 법 없고 건곤으로 집을 삼으니 모두가 내 집이네. 이 몸 가는 곳 마다 내 삶이 풍족하니 주리면 송화를 먹고 목마르면 샘물 마시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보물을 지니고 있으면서 또 다른 곳에서 보물을 찾으려 합니다. 이렇게 천지가 집을 삼고 일월로 등불을 삼아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 한 물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서 끝없는 자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나를 밝히서 무명에 허덕이는 다른 이를 이끌어 가려는 보살의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불보살님의 탄식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수행자는 명철한 지혜의 판단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어떠한 수행자의 모습인지 스스로를 살피는 것으로 최선을 삼아야 합니다.

근본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진여법계라고 하는 보물 창고 속에 살면서도 진귀한 줄 모르고 보배를 찾아 헤맬니다. 밖으로 광주하던 걸음을 멈추고 자성의 거울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구족되어 있는 속에서 부족하다고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삼독이라는 지독한 그물을 끊어 버리고 천진 자연의 걸림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저것 재고 있다 가는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대장부의 굳건한 용맹심을 발해서 작은 절계에 걸리지 말고 큰 기틀을 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신심으로 우리의 심전은 아무리 깨내어도 다하지 않는 보고라는 것을 믿을 때 헛걸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바탕 삼아 정도라는 길이 탄탄해지는 것이니 잘 살펴 헛걸음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해제를 한다면 근본의 매듭을 풀어 참 해제를 해야 합니다. 시작이니 끝이니 하는 것은 근본에 도달하기 전에 끝없는 연속인 것입니다. 풀고 또 풀어서 더 이상 풀 것이 없는 데 이르러야 해제를 한다 하겠습니까.

一切無非佛事 何須攝念坐禪 妄想本來空寂 하니 不用斷除攀緣 이더다. 일체 모든 것이 불사 아닌 게 없거늘 어찌 생각을 거두어 좌선만 하려하는가? 망상이 본래 공하여 적적한 것이니 인연들을 애써 끊으려하지 말지이다.

“생사의 조롱속을 벗어나라”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조롱속을 벗어나는가 조롱속에 담은 모이가 있느냐 짧은 가마술이 가깝고 들에 사는 학은 양식이 없느냐 천지가 넓도다. 미혹하면 모두가 쫓붙에 뛰어드는 나비와 같고 깨달으면 모두가 조롱을 벗어난 학과 같도다.

우리가 참선공부를 하는 목적은 저 생사의 조롱속을 벗어나 학과 같이 드넓은 천지안에서 대자유 대해탈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부지런히 의심하는 화두를 들고 곧장 여래의 본래 한 물건도 없는 자성심지를 관조하면 일체망녕이 사라지고 화두만이 현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리에서는 나도 없고 남도 없으며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으며 율고 그림도 없으며 선도 약도 없으며 오직 타성 일편의 시절이 도래하여 동정의 간격이 없고 자나 깨나 한결 같은 공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석가세존을 따라 수행 정진한 제자들과 역대조사들이 공부하여 크게 깨진 것입니다.

일찍이 향엄 스님은 위산 영우 선사의 법제자로 어려울 때는 신동으로 하나를 들고 열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위산 스님이 향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 아직 동서도 가리지 못하던 때의 본래면목을 어떠한 것이냐 말해보라.”

향엄은 스승의 이 같은 뜻밖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까지 자기 가 알고 있던 지식으로 답하고자 하였으나 위산 스님은 단호히 배척하였습니다. 향엄은 스승에게 간절히 설하여 주기를 청하였으나 위산 스님은 말하였습니다.

“내가 말한다 해도 그것은 나의 견해일 뿐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에 향엄 스님은 위산 스님을 떠나 이 절 저 절을 떠돌던 중 혜종 국사의 유적지에서 탐을 지키며 오가는 수좌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 정소를 하다가 돌맹이를 주위 대밭에 던졌습니다. 대나무에 돌맹이가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부모미생전 본래면목에 대한 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향엄은 무한한 환희심으로 목욕 제계하고 새 옷을 갈아입은 후 향을 피우고 멀리 위산 스님을 향하여 예배를 올리면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위산 스님께 예배하는 것은 위산 스님의 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의 본래면목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들 오늘의 이 같은 경쾌함이 있었으리요.”

“해안과 법력을 갖추라”

덕송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과연 결제는 무엇이고, 해제는 무엇인가? 결제는 육근 육식의 모든 허망한 활동을 쉬고 가만히 자기의 본래면목을 돌이켜 보는 것이 결제입니다. 이것을 얼마 동안 하느냐 하면 구수를 하는데 일순이 10일이나 90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결제중에 삼학사를 마치면 다행이지만 마치지

못 하면 해제는 아니고 결제중이라 이말씀입니다.

우리가 중생사를 다 마치고 묘사한(事懺)이 되는 것이 해제입니다. 만약 이러한 해제를 하지 못한다면 타고 있는 육식의 불을 끄고 본래면목을 회복하는 결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해제를 못한 상태에서 그저 삼보에 죄송하고 외호종과 단월에게 부끄럽고 미안할 뿐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사람됨을 받아 부처님 법을 만나 무위법을 닦는 대중에 참여하여 공부한다는 사실이 다행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선근을 심었기에 무슨 복으로 부처님 도장에서 이러한 호사를 누리는가 생각하면 가슴이 찡찡합니다. 만약 이 소중하고 다행스러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진을 소홀히 한다면 아예 공부를 하지 않는 중이 있다면 그것은 불법중도에 육이요 불한당이며 속물들이라 하겠습니까.

지금 불교의 위기라고도 합니다. 외도들이 극성하여 금력과 권력, 조직력, 그리고 지식력을 동원하여 우리 불교를 말살하려 합니다. 유비무환인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대비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외도들이 날뛰다 해도 우리의 대비가 철저하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관경에 삼보의 열가지 위신력 가운데 첫번째 견뢰(堅牢)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보는 신묘하여 어떤 외도들도 깨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불법내의 부실한자에 의해서 위기를 맞는다 했습니다. 불자들이 신심과 원력과 공심으로 확고한 생활을 한다면 어떠한 외도들도 감히 어찌 못하겠지만, 만약 자성과 자정의 노력도 없고 신심도 원력도 공심이 없다면 교단이 불신과 불화와 반목과 갈등으로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사중에 불사는 철저한 신심과 원력과 공심으로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속히 해안과 법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법을 해치려는 어리석은 중생들과 고통 속에 해매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德崇山裏猶殘雪 窓外一枝梅花香 덕송산은 아직 잔설로 덮혔는데 창밖에 한가지 매화꽃 향기 그윽하여라.

“공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서산스님께서는 애써 공부하는 제자에게 이런 계승을 써주셨습니다.

歷歷提公案하야 莫浮亦莫沈하라 虛明如水月하고 緩急若調琴하라 病者求醫志하고 嬰兒憶母心하라 做工親切處에 紅日上東峯하리라

화두를 분명하게 들어 망상도 혼침도 말라 텅 비고 밝기는 물에 비친 달같이 하고 게으르지도 조급하지도 말고 거문고 줄 고르듯 하라 병든 이가 의사 찾듯 어린아이가 어미 찾듯 이렇게 절실하게 공부하여 아침이 되면 해는 동산에 떠오를 것이다

우리 송광사 16국사 가운데 열여섯 번째 국사이신 고봉 스님은 지리산 칠불암(七佛庵)에서 공부하실 때 수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저녁 예불하고나서 무거운 바윗돌을 등에 지고 동구(洞口)까지 내려갔다 오면 날이 밝았다고 합니다.

한해가 끝날 무렵, 갑자기 짙어진 돌이 가벼워 돌아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앞밭로 돌을 받치고 따라온 것입니다.

스님께서 큰 소리로 내가 왜 내 공부를 방해하느냐고 야단을 쳐서 쫓아냈는데, 지금도 쌍계사에 그 돌이 제수석(除睡石)이라는 이름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대중은 겨울동안 애써 공부하고 오는 해제를 하는데 결제동안이 정중공부(靜中工夫)라면 해제동안은 동중공부(動中工夫)일 따름이지, 공부 자체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인은 잠이 오면 송곳으로 다리를 찌르면서 공부했는데 어찌 해제라고 공부를 게을리 할 수 있었습니까?

幾條綠水岩前去 一片白雲江上來도다

몇 줄기 푸른물이 바위 앞으로 흘러가고 한 조각 흰구름이 강물위로 떠오르는 구나 주장자를 세 번 구르고 하좌하다.